

「お~あ(や)る」考

— 虎明本狂言を中心に —

韓世眞*

目次

- 1. 序論
 - 2. 本論
 - 2.1 話者보다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
 - 2.2 話者와 動作主가 同等한 경우
 - 2.3 話者보다 動作主가 下位者인 경우
 - 3. 結論
-

1. 序論

尊敬의 補助動詞인 「お~あ(や)る」에 대해 土井忠生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¹⁾

中世に最も廣く行われた動詞尊敬表現は「御+連用形+ある(又は)なる」の云い方である。連用形の代りに動作を意味する漢語名詞が使われることもある。この云い方は鎌倉時代に高い敬意を示したが、室町時代の末になると、次第に低下して、直接目上の人に向かって話すのには使わず、同輩程度に用いた。

本稿에서는 大藏虎明本「狂言」(이하「虎明本」이라함)²⁾을 中心으로 尊敬의 補助動詞인 「お~あ(や)る」에 尊敬의 意味와 더불어 話者가 자신의 品位를 과시하거나, 聽者인 動作主에게 心理的 거리감을 느끼게 하며, 아울러 觀客에 대한 배려의 意味가 포함되어 있는 정중 표현의 用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狂言은 抄物나 キリシタン文獻 등과 더불어 中世末期부터 近世初期에 걸친 言語資料로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本稿에서 狂言을 考察의 對象으로 한 理由는, 登場人物이 다채롭고 身分關係가 明確하다는 점과 對話劇의 形態로 進行하며, 場面·狀況이 分明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狂言을 對象으로 한 研究로는 龜井孝(1944), 山崎久之(1963), 池田廣司(1992), 蜂谷清人(1998), 小林賢治(2000) 등이 있다.

山崎久之는 室町時代 이후의 敬語體系를 「虎明本」의 對称代名詞와 述語와의 對應 關係를 調査

* 단국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1) 土井忠生(1977)『國語史論攷』三省堂 p.264

2) 池田廣司·北原保雄(1972)『大藏虎明本狂言集の研究 本文編』上·中·下 表現社

하여 五段階로 정리하고 있다.³⁾ 本稿에서는 <表1>과 같이 代名詞와 補助動詞·助動詞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表1>

	こなた段階	そなた段階	わごりよ段階	そち段階	おのれ段階
代名詞	こなた	そなた	わごりよ	そち	おのれ
補助動詞 助動詞	(さ)せらるる お-あ(や)る	お-ある お-やる	-(さ)しめ 平常語	平常語	しをる

<表1>에서 「そなた段階」인 「お~あ(や)る」는 敬意가 낮기는 하지만, 역시 尊敬의 意味로 說明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話者と 動作主, 그리고 話題의 人物의 社會的 關係를 설정함에 있어서 山崎久之가 分類한 五段階의 人稱代名詞를 參考로 한다. 「こなた段階」가 가장 높은 敬意를 나타내며, 그 다음이 「そなた段階」의 順이다.

調査範圍는 「虎明本」의 「脇狂言之類」「大名狂言類」「髻類·山伏類」「鬼類·小名類」「女狂言之類」「出家座頭類」로 限定하였다. 用例를 採取함에 있어서 獨白과 「謠曲的な部分」「ト書きの部分」은 調査對象에서 除外하였다.

2. 本 論

일반적으로 待遇形式은 話者が 動作主 또는 話題의 人物을 어떻게 待遇하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어떻게 待遇하는가는 상대방이 자신 보다 어떤 점에서든지 순위라든가, 자신과 친한 관계인지 아닌지,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公的인지 私的인지 라고 하는 評價的인 基準을 수반하게 된다.

「虎明本」에서 登場 人物間의 社會的 關係는 全體的인 類型을 살펴보기 위해, 身分·性別·나이·職業, 경우에 따라서는 文脈과 狀況을 參考로 하여 「上-下」라고 하는 關係를 설정하였다. 登場 人物에 대한 설명은 『能·狂言V』⁴⁾를 參考로 하고자 한다.

本稿에서 調査한 결과 「虎明本」에 보이는 「お~あ(や)る」의 用例는 354례로 그 분포는 다음 <表2>와 같다.

<表2>

虎明本	脇狂言之類	大名狂言類	髻類·山伏類	鬼類·小名類	女狂言之類	出家座頭類
354例	54例	87例	41例	37例	68例	67例

먼저, 「虎明本」에 등장하는 話者と 動作主, 話題의 人物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3) 山崎久之(1963) 『國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武藏野書院 p.709

4) 小山弘志·田口和夫·橋本朝生(1987) 「狂言の形成と展開」 『能·狂言V』岩波書店 p.113-p.149

생각하기로 한다.(本稿에서는 動作主는 聽者를 意味하며, 話題의 動作主는 話題의 人物을 意味한다.)

a. 話者보다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

1) さいぜんよりはいかうへつてはござれ共、とてもの事にまちつとへらさせられひ
 (鼻取182-6) 太郎→大名

b. 話者と 動作主가 同等한 경우

2) 是へまいるも別なる事でもおりなひ、そなたおまふしやれ
 (藥水108-3) 孫二→孫一

c. 話者보다 動作主가 下位者인 경우

3) さあらば骨折なれ共、かいだうへいでて、よひものがあらはおいてこひ
 (鼻取182-8) 大名→太郎

話者보다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에는 例1)과 같이 「(さ)せらるる」를, 話者と 動作主가 同等한 경우에는 例2)와 같이 「お~あ(や)る」를, 話者보다 動作主가 下位者인 경우에는 例3)과 같이 「平常語」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話者보다 動作主가 下位者인 경우에도 「お~あ(や)る」가 쓰이고 있는 例를 볼 수 있다

4) いや兩人ながらちかひ所も、いつもおそう戻りをるほどに、二人いひつくる、かまひておそうもどりやつたらは、くせ事でおりやらふぞ(文荷109-17) 主→太郎・次郎

例4)는 심부름을 보내면 항상 늦게 돌아오는 太郎・次郎에게 이번에도 늦게 돌아오면 혼을 내겠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보통 敬語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話者인 主人이 動作主인 太郎・次郎에게 「(お~ あ(や)る」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表2>에서 분류한 「お~あ(や)る」의 用例를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話者と 動作主, 話題의 人物의 社會的 關係에 따라 다시 分類하면 다음 <表3>과 같다.

<表3>

	脇狂言之類	大名狂言類	髻類・山伏類	鬼類・小名類	女狂言之類	出家座頭類	計
話者보다 動作主가 上位者일 때	22	19	25	25	43	31	165
話者と 動作主가 同等할 때	32	50	14	5	9	15	125
話者보다 動作主가 下位者일 때	0	18	2	7	16	21	64
總用例(354 例)	54例	87例	41例	37例	68例	67例	

주로 同等한 關係에서 쓰이고 있다고 하는 「お~あ(や)る」에는 <表3>에서 알 수 있듯이 同等한 關係가 아닌 경우의 例도 상당수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虎明本」의 用例를 통하여 補助動詞 「お~あ(や)る」에 尊敬의 用法과 더불어 敬重 表現의 用法이 나타나고 있음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話者보다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

話者보다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에는,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와 聽者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가 있다.

2.1.1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는 敬意가 상당히 높은 예와 상대적으로 敬意가 낮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에 대해 높은 敬意를 나타내는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5) 其子細は、すいこ天王の、かたのへみゆき有て、明くれ鷹をつかはれしに、(禁野 266-6) 大名→雉領の者(すいこ天王に對して)
- 6) …人の仰らるるは、仁王十一代、すいにん天皇のくわうちよ、やまとびめのみこと、御神鏡をいただき、國々を御めぐりあり、いせの國二見のうらより、でんさくのおきな御あんないしやにて、御ちんざのさだまりたと申が、(鏡男179-9) (すいにん天皇のくわうちよに對して)

例5)는 「禁野」에서 사냥을 하는 大名을 잡기 위해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피를 낸 후 大名과 만나 본인의 身分을 숨기고 이 지역이 「禁野」가 된 연유를 묻자, 大名가 그 연유를 説明하고 있는 장면이다. 例5)에 쓰여진 「みゆき有て」는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 「すいこ天王」에 대한 敬意를 나타내는 것으로, 本稿에서 分類하고 있는 「こなた段階」보다도 더 높은 敬意를 나타내고 있다. 例6)도 마찬가지로 화제의 人物인 「やまとびめのみこと」에 대해 높은 敬意를 나타내고 있다.

山崎久之는 「お~ある」의 變化의 傾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⁵⁾

「お~ある」は最高敬語段階(第一段階)であった。「お~やる」は第一・第二段階に通じて用いる。「~やる」は第二・第三段階に通じて用いるが、第二段階が普通である。(略)江戸時代に入ると次のように変貌している。「お~ある」は大綱として話し言葉としては姿を消し、文章語として使用するようになる。この外、形式的な晴れのことば(公式語)として使用することはあつたであろう。つまり、普通用法では音聲言語としては姿を消し、「文字言語の世界に隠退した」のである。そしてこの場合の待遇価値の變化であるが、音聲言語として生きていたことばが、死語となったことを示して、待遇価値は固定してしまった。つまり「待遇価値の凍結又は化石化」である。(略)「お~ある」の化石化の原因は、その上に來る「連用形の最終の母音(i 又は e)」と「ある」の最初の母音音節との二母音の單音化や拗音化による「あ」音の削減にある。

위 例5)6)은 모두 話者が 聽者에게 들려주는 話題의 人物에 대한 描寫 부분⁶⁾으로, 文語体로 쓰여진 「語り」부분에는 「御~ある」가 「お~やる」로 拗音化하지 않고 化石化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待遇價值도 固定되어 話題의 人物에 대해 最高의 敬意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語り」에는 尊敬의 補助動詞인 「御~ある」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口語文에는 보이지

5) 山崎久之(1965) 「「お=ある」「お=やる」「やる」の変遷」『近代語研究』第一集 武藏野書院 p.191-p.214

6) 本稿에서는 話者が 聽者인 動作主에게 들려주는 화제의 人物에 대한 描寫 부분을 「語り」라고 부르기로 한다.

않는 尊敬의 補助動詞「給ふ」의 용례도 보이고 있다.

- 7) 惣じてしやか如來の御弟子多き中に、しゆりはんどくと申たるは、ぐどん第一のおかたにて、わが名をさへ覺へ給はずして、わが名を札をかき付て、竹のさきにゆひ付、それを持ってありき給ふ、かたかたのお名をは何と申ぞととへは、かの竹をさしだし給ふほどに、どんなる御かたにてましませども、五打卯發明をばなさるる、則みやうがといふものは、はんどくのべう所よりおひ出たる物なればとて、…(鈍74-15) 主→太郎(しゆりはんどくに對して)

例7) 의 「給ふ」도 같은 맥락에서 說明할 수 있는데 즉, 文語体로 쓰여진 「語り」로 待遇價值가 固定되어 話題의 人物인 「しゆりはんどく」에 대해 높은 敬意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語り」보다는 相對적으로 敬意가 낮지만, 역시 話題의 人物이 上位者인 「一般會話文」⁷⁾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8) 惣じてあの三郎殿は、ちやくはいなれ共、念をいつた人じや、たのふだ人にあふて、先度は紙をひきさひて文をかひておこしやつたの、などとおまふしやつたらは、兩人の者をただはおきやるまひかな (文荷112-14) 二郎→太郎(主・三郎殿に對して)
- 9) 心得た、さらはゆうれいのまねをしていでてあはふ程に、ちかくへおよりやらぬやうにしてくれさしめ (ぶあく314-2) ぶあく→太郎(主に對して)
- 10) …はやし物をしてあるひたらは、内からおこたやらうず、そうせずはなるまひと思ふが、なにとあらふぞ (麻生158-4) 藤六→下六(主に對して)

위 例8)9)10)과 같이 話題의 人物이 上位者인 「一般會話文」인 경우의 「お~あ(や)る」는 「語り」에 비해 그다지 敬意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話題의 人物에 대한 敬意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敬意의 表現이 話題의 人物에 대한 話者의 心理的인 變化나 場面的 狀況의 變化를 엿볼 수 있는 部分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의 用法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身分의 上下關係가 가장 뚜렷한 「大名狂言類」를 例로 들어 보면 다음 <表4>와 같다.

<表4>

	話者(下)→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上)	話者(下) → 聽者인 動作主(上)
~(さ)せらるる	4例	69例
お~あ(や)る	15例(語り 포함)	4例
~(ら)るる	16例(尊敬動詞+(ら)るる 포함)	1例

話者보다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お~あ(や)る」이외에 다음 例11)例12)와 같이 「(ら)るる」 「(さ)せらるる」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あのおなじや者にあふた、中々の事じや、してしておやじや人はなんとしていらるるぞ

7) 話者が 聽者에게 들려주는 話題의 人物에 관한 묘사이지만, 「語り」와는 달리 語形도 拗音化된 형태가 나타나며, 敬意도 「語り」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會話文을 「一般會話文」이라 부르기 로 한다.

(ぶあく 315-10) 主→ぶあく (主の親に對して)

- 12) やれさて太郎くわじやめづらしや、此ほどたのふだ人の見すてさせられたれば、わごりよまでふつつとおりやらなんだなふ (墨塗173-17) 女→太郎 (大名に對して)

그러나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에는 「(ら)るる」가 16例로 가장 많고, 「お~あ(や)る」가 15例, 「(さ)せらるる」도 4例가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話者보다 話題의 人物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 文語体로 쓰여진 「語り」에 있어서는 「お~ある」의 形態가 化石化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待遇價值도 固定되어 最高의 敬意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一般會話文」에서는 「語り」에 비해 상대적으로 敬意가 낮고, 그 敬意의 表現이 話題의 人物에 대한 話者の 心理的인 變化나 場面的 狀況의 變化를 엿볼 수 있는 部分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2 聽者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

「虎明本」에는 例13)과 같이 聽者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의 「お~あ(や)る」用法이 보이지만, 이런 用例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 13) なく事は隨分なかうが、布施を半分おくりやらふか (泣尼326-6) 尼→住持

聽者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에는 다음 例14)와 같이 「(さ)せらるる」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 14) いやまつきかせられひ、おのが、あいつて申事は、此所は七つなつて人のこぬ所へきた程に、いでくらはふと申て、 (清水59-16) 太郎→主

例13)의 「なく事は隨分なかうが、布施を半分おくりやらふか」와 같이 上位者인 動作主에 대해 「お~あ(や)る」를 사용했던 「尼」도 直後に 다음 例15)와 같이 역시 「(さ)せらるる」로 敬意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5) (住持時分もよひほどに、いざさらはおりやれおりやれ、かまひて談義の内に、ようなひてくれさしめ (尼)それはまかせておかせられひ (泣尼326-8) 尼→住持

앞의 <表4>에서 알 수 있듯이 話者が 聽者인 動作主에 대해 직접 敬意를 나타낼 때는 「(さ)せらるる」가 69例로 압도적으로 많고, 「お~あ(や)る」는 4例 뿐이며, 4例도 모두 例16)17) 과 같이 「御めんなれ」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청하는 表現에 限定되어 있다.

- 16) 私はいなか者でござるが、別にれうじな事は申さぬ、御めんなれ (栗田213-12)

太郎→栗田

- 17) 私はいそぎの使にまいる御めんなれ (二人280-4) 通行人→大名一

이처럼 動作主에 대해 직접 敬意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お~あ(や)る」「(さ)せらるる」이외에 다음

과 같이 「(ら)るる」가 사용된 例도 보이고 있다.

- 18) それはまかせられひ、私のうけ取てからは、そつともおきづかひなされそ、我等の何かと申も、しぜんたすけさせられうずるかとぞんじて申てござる、此上は何の苦もなふ、さてもしたりと仰らるる程に、仕って參らふ程に、少しも御きづかひなされそ(ぶあく305-6) 太郎→主

例18)에서는 「まかせられひ」라고 「(ら)るる」를 사용하던 話者が 같은 文脈에서 역시 「たすけさせられうずる」의 「(さ)せらるる」나 「御~なさる」가 쓰이고 있으므로, 이것은 역시 「(さ)せらるる」의 段階의 敬語를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話者が 上位者인 動作主에게 직접 敬意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さ)せらるる」가 가장 많이 쓰이며, 「お~あ(や)る」도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數가 적고, 인사와 같은 관용적 표현에 주로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話者보다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의 「お~あ(や)る」用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경우에는 聽者인 動作主에 대한 敬意보다는 話題의 人物에 대한 敬意를 나타내는 用法이 大部分이었다.

「お~あ(や)る」가 話題의 人物에 대한 敬意를 나타내는 경우, 「語り」에 있어서는 「お~ある」의 形態가 化石화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待遇價值도 固定되어 最高의 敬意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一般會話文」에서는 「語り」에 비해 상대적으로 敬意가 낮고, 그 敬意의 表現이 話題의 人物에 대한 話者の 心理的인 變化나 場面的 狀況의 變化를 엿볼 수 있는 部分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話者と 動作主가 同等한 경우

本稿에서 分類한 話者と 動作主가 동등한 경우의 「お~あ(や)る」는 山崎久之가 분류한 敬語体系에서 본다면 「そなた」段階에 속한다.

話者と 動作主가 同等한 경우에 있어서의 「お~あ(や)る」라고 하지만, 그 狀況이나 신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9a) 今から何もかはふ程におまきやれ (雁168-1) 太郎→賣手
 19b) 代物をおこしやれ (雁168-3) 賣手→太郎

例19)는 商人과 손님 관계인 두 사람이 모두 「お~あ(や)る」를 사용하고 있지만, 손님이 商人에 대해 사용한 例 보다 商人이 손님에 대해서 사용된 例가 많았다. 이것은 商人이라는 입장에서, 손님에 대한 敬意와 더불어 話者が 자신의 어투를 정중하게 함으로서 聽者인 손님에 대한 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a) されは此間はおめにかからなんだ、是へまいるも別なる事ではおりなひ、おききやつたか、養老の瀧と申て、藥の水が出て、… (藥106-13) 孫一→孫二
 20b) 是へまいるも別なる事でもおりなひ、そなたおまふしやれ (藥108-3) 孫二→孫一

例20)은 家族間에 사용된 例로 물론 두 사람의 서열 관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이 모두 「お~あ(や)る」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家族間에 사용된 敬意라기 보다는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例를 볼 수 있다.

21a) 某は用を前にあてて、あとからさきへまいる者じや、御めんなれ(餅酒43-1)

加賀の百姓→越前の百姓

21b) そなたは、最前からざれ事ふかい人じや、して、そなたは時のそうしやでおあぎやるか、そうしやがさだまつたか (餅酒44-7) 加賀の百姓→越前の百姓

例21)은 身分이 同等한 경우라도 처음 만난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聽者인 動作主에 대한 敬意라고 하기보다는 話者가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는 정중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平常語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서로 정중한 표현을 함으로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お~あ(や)る」보다 敬意가 한 단계 낮은 「わごりよ段階」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わごりよ段階」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平常語가 對應을 한다.

22a) げにもこひのおもにといふうたひが有程に、こひのぶんしやうがある物じや、おもひよ

(文荷111-10) 二郎→太郎

22b) いざさらはその歌火をうたふまひか (文荷111-10) 太郎→二郎

例22a)b)와 같이 보통 平常語를 사용하는 「わごりよ段階」는 命令形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さ)しめ」도 사용되고 있다.

23a) いや兩人におしやり付た程に、おればかりもたう子細がなひ、もたしめ (文荷110-9)

太郎→二郎

23b)それほど思はしますか、おもひ物ではなしおこさしめ (文荷110-10) 二郎→太郎

『時代別國語大辭典(室町編)』에서는「(さ)し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⁸⁾

「尊敬の助動詞「(さ)す」の連用形に「給ふ」の付いた「(さ)せたまふ」から「(さ)したまふ」を経て「(さ)しまふ」「(さ)しもふ」が成立したといわれる。「(さ)しもふ」からはさらに「(さ)しも」「(さ)しむ」が生じた。(略)命令形はその性質上、敬意よりもむしろ要求を表す命令表現として、その語形も本来の「(さ)しまへ」から早くに「(さ)しめ」に轉じた。」

즉, 命令形에 사용된 「(さ)しめ」자체에는 이미 敬意가 없다고 보여진다. 要求 등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命令形을 사용하기보다는 가벼운 존경의 의미를 가지는 「(さ)しめ」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敬意라기 보다는 話者가 聽者인 動作主를 배려하는 用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話者와 動作主가 동등한 경우의 「お~あ(や)る」는 聽者인 動作主에 대한 敬意를 나

8) 土井忠生(1991) 『時代別國語大辭典(室町編)』三省堂 p.380

타내기도 하지만, 정중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動作主를 배려하는 用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身分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서로 「(さ)せらるる」段階의 敬語를 쓰던 大名가 劇의 進行 과정에서 狀況이 바뀌자, 敬意가 한 단계 낮은 「お~あ(や)る」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話者の 心理的 變化나 場面的 狀況이 待遇表現을 선택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例24)25)은 大名 두 사람이 外出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二人大名」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사이다. 보통 外出을 하는 경우 大名는 太郎에게 칼을 들게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날은 太郎가 외출을 하고 없기 때문에 大名1이 직접 칼을 들고 집을 나선다. 이것을 본 大名2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24) (大名一) いざさらはござれ 《つねのこたくちぎ有て太刀持た物さきへゆく》 (大名 二) 見ま
 らすれば自身太刀を もたせられた (二人279-9) 大名2→大名1

이와 같이 大名2는 大名1에 대해 例24)와 같이 「~(さ)せらるる」로 待遇하고 있다. 그러자 大名1은 길을 가다가 적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칼을 들게 하려고 한다고 대답한다. 얼마 후 길을 가는 通行인을 만나 억지로 칼을 들게 한다. 억지로 칼을 들게 된 通行인은 자신이 칼을 들게 되자 이번에는 거꾸로 大名들을 위협하며 소지품 등을 모두 빼앗는다. 그러자 이런 상황에 처한 大名2가 大名1에 대해 例25)와 같이 말을 한다.

25) (通行人) おこせずは切るぞ (大名一) やらふやらふ (大名二) はやう おやりやれ
 (二人 281-10) 大名2→大名1

이것은 이런 狀況에 처한 動作主人 大名1에 대한 話者인 大名2의 心理的 變化로 인해 敬意가 한 단계 낮은 「お~あ(や)る」를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心理的 變化나 場面的 狀況이 待遇表現을 선택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話者と 動作主가 동등한 경우의 「お~あ(や)る」는 初面이나 家族사이, 그리고 身分이 同等한 경우라도 처음 만난 사이에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お~あ(や)る」는 話者の 聽者에 대한 敬意라기 보다는 話者が 정중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 狂言을 상연함에 있어서 주요 鑑賞 階層이 武士階級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觀客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동등한 경우의 「お~あ(や)る」는 話자가 자신의 어투를 정중하게 함으로써 狂言을 감상하는 觀客을 배려하는 意味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3 話者보다 動作主가 下位者인 경우

「虎明本」의 경우 話者보다 動作主人 聽者가 下位者인데도 불구하고 「お~あ(や)る」로 表現하고 있는 用例가 보인다.

26) すいさんなやつめの、しうがわすれたれば、下人がとつてくる物でこそあれ、しうのわすれたかた

なを、下人が取ほうは有まひおこしやれ (鈍77-12) 主→太郎

例26)은 ‘大名狂言의 경우에는 大名가 화가 났을 때나 의뢰, 명령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説明되어 왔다.⁹⁾

그러나 이런 경우도 話者が 정중 표현인 「お~あ(や)る」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品位를 내세우며, 상대방에게는 心理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例26)과 같이 大名가 화가 나거나 부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話者보다 動作主가 下位者인 경우 「お~あ(や)る」를 사용한 用法이 상당수 보이고 있다.

27)さらは急いですまふをおとりやれとおしやる (鼻取189-11) 太郎→新座の者 (大名の言葉)

28)今からはせつせつまかりのほつておめにかからふ、何がなどぞんずれ共、幸もちあわせた程に、此瓶鏡をしんずる、身共を見ると思ふて形見におみやれ (墨塗176-14)

大名→女

例27)은 스모를 좋아하는 大名가 太郎가 새로 데려온 신참과 직접 스모를 하려는 장면이다. 「さらは急いですまふをおとりやれ」라는 大名의 말을 太郎가 신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話者인 大名가 사용한 「おとりやれ」는 신참에 대한 敬意가 아니라, 話者인 大名가 정중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品位를 과시하고, 상대방인 신참에게는 心理적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또한 例28)과 같이 헤어지는 여자에게 자신의 정표로 거울을 주며, 자신을 보듯이 보라고 하는 이런 장면에 있어서의 「お~あ(や)る」는 狂言에 있어서의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역시 정중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聽者인 動作主에게 자신의 品位를 과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觀客에 대해서는, 話者が 이런 상황에서 정중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劇의 狀況이 反轉되고 있다든지 話者の 心理적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間接적으로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外山映次는 心理·場面 등에 의한 敬語意識의 變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¹⁰⁾

つまり序列的には敬語を使用すべき對象ではないのに、ことさら敬語を用いる場合もある。これは話し手が、恩恵を受けたり、心理的負い目を持ったり、何かを依頼したりする場合に多く現れ、著しく相對敬語的性格の濃いものである。

즉, 心理·場面 등에 의한 敬語意識은 상대방에 대한 敬意라기 보다는 話者が 자신의 어투를 정중히 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 聽者에 대한 배려도 포함된 用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虎明本」에는 話者보다 聽者인 動作主가 下位者인데도 불구하고 사용된 정중 표현의 用法이 「お~あ(や)る」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さ)せらるる」와 「(ら)るる」에도 보이고 있다. 例25)는 主와 太郎가 「くらま」에 참배를 하는 「鈍根草」의 한 장면이다.

9) 山崎久之(1963) 『國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武藏野書院 p.752

10) 外山映次(1977) 「敬語の變遷(2)」『岩波講座日本語4 敬語』岩波書店 p.148

29) (主) 汝もおがめ (太郎) かしこまった 《太郎くわじやもおがむ》…(鈍73-7)

例29)에서 알 수 있듯이 主는 太郎에 대해「汝もおがめ」와 같이 平常語를 쓰고 있다. 그러나 다음 장면에서는, 다음 例30)과 같이 主가 太郎에게「(ら)るる」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0) (太郎) さいぜん宿坊よりおつかひで、酒さかながまいつた、おがませらるる時でござあつた程に、某が心得てお礼を申て、お使をはもどいてござある、お神酒をまいりませう (主)それはきとくな事をせられた一つのまふ (鈍73-13) 主→太郎

例30)은 大名와 太郎가 「くらま」에 参배를 마친 후, 太郎가 술과 안주를 얻어오자 大名가 太郎를 칭찬하는 部分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敬重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話者 자신의 품위를 나타내며 聽者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話者보다 動作主인 聽者가 下位者인 경우에 사용된 「お~あ(や)る」는 聽者에 대한 敬意보다는 話者가 자신의 品位를 내세우고, 경우에 따라서는 聽者에게 心理的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넓은 意味에서의 聽者인 觀客까지 배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本稿에서 獨白 部分은 調査對象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狂言을 상연함에 있어서 觀客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虎明本」의 「名乗り」部分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かやうに候者は、どうしうもとすの郡に住居する者にて候う、…此程みみがとおふなつて、せうせうの事はゑおききなひ程に、何としてよからふと、ぞんずる所に (藥水106-4)

例31)은 「藥水」의 「名乗り」에 해당하는 部分으로 아직 聽者인 動作主가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話者가 대사를 하고 있는 對觀客的인 部分이라고 할 수 있다. 「名乗り」에는 「お~あ(や)る」이외에 尊敬語에서 파생된 「おりやる」「おちやる」「ござる」등의 丁寧語가 觀客에 대한 敬重용법으로 사용된 例가 보이고 있다.

32) 是は此あたりに住居する者で御ざる、それがしくらまを信じて、毎月とらの日にはくらまへ参る、則今日はとらの日でござるほどに、まいらふと存る、某一人にても御ざない、爰にいつも同道仕るおかたが御ざるほどに、さそふて参らふ… (連歌31-2)

例32)는 「連歌毘沙門」의 「名乗り」에 해당하는 部分이며, 이 경우의 「ござる」는 聽者인 動作主를 尊敬하는 것이 아니라, 觀客을 의식한 敬重 표현이다. 「虎明本」에는 例33)처럼 「名乗り」가 아닌 部分에서도 觀客을 배려하는 敬重 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33) 畏てござる、やれやれうれしや、めんめんまいらふと存たれば、ひまがあひた、申々は皆是へござつてござる (せんじ物116-11) 太郎→主 (客衆に)

이상과 같이 話者보다 聽者인 動作主가 下位者인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お~あ(や)る」의 用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平常語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話者가 敬重 표현인 「

お~あ(や)る」를 사용함으로써 自身の 品位를 과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聽者인 動作主에게 心理的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話者が 자신의 어투를 정중하게 함으로써 觀客을 배려하고, 敬語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敬語를 사용함으로써, 觀客에 대해 劇의 進行이나 劇의 反轉, 또한 話者の 心理的 變化를 암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結 論

本稿에서는 「虎明本」의 「お~あ(や)る」를 話者と 動作主, 그리고 話題의 人物과의 關係라고 하는 면에서 살펴보았다. 狂言은 다양한 身分關係 劇의 進行에 있어서의 전환 등 敬語 사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變化 要因이 있다. 動作主에 대한 敬意를 나타내던 「お~あ(や)る」가 「虎明本」에 있어서는 動作主에 대한 敬意와 더불어 話者が 자신의 品位를 과시하는 用法과 動作主에게 心理的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正중 표현의 用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話者보다 話題의 人物이나 聽者인 動作主가 上位者인 경우의 「お~あ(や)る」는 話題의 人物에 대한 敬意를 나타내는 用法이 大部分이고, 聽者인 動作主에게 직접 敬意를 나타내는 用法은 그다지 많지 않다. 話題의 人物에 대한 敬意는 「語り」에서는 「お~ある」가 拗音化되지 않고 化石化 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待遇價值도 固定되어 最高의 敬意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一般會話文」에서는 「語り」에 비해 상대적으로 敬意가 낮고, 그 敬意의 表現이 話題의 人物에 대한 話者の 心理的인 變化나 場面的 狀況의 變化를 엿볼 수 있는 部分에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話者と 動作主가 동등한 경우의 「お~あ(や)る」는 初面이나 家族사이, 그리고 身分이 同等的한 경우라도 처음 만남 사이에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お~あ(や)る」는 話者が 聽者인 動作主에 대해 敬意를 나타내며, 아울러 正중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聽者인 動作主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狂言을 상연함에 있어서 주요 鑑賞 階層이 武士階級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觀客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話者が 자신의 어투를 정중하게 함으로써 觀客에 대한 배려의 意味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さ)せらるる」段階의 敬어를 사용하던 話者が 心理的 變化로 인해 한 단계 낮은 「お~あ(や)る」를 쓰고 있는 것을 본다면, 話者の 心理的 變化나 場面的 狀況의 變化가 敬語를 선택하는 하나의 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話者보다 動作主인 聽者가 下位者인 경우의 「お~あ(や)る」는 聽者인 動作主에 대한 尊敬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話자가 자신의 品位를 과시하고, 聽者인 動作主에게는 心理的 거리감을 갖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話자가 자신의 어투를 정중하게 함으로써 觀客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正중 표현의 用法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池田廣司・北原保雄(1972)『大藏虎明本狂言集の研究』本文編 上・中・下 表現社
- ・山崎久之(1963)『國語待遇表現体系の研究』武藏野書院 pp.702-822
- ・林田 明(1967)「古本狂言文の詞章—虎清本と虎明本—」『近代語研究 第2集』武藏野書院 pp.17-65
- ・林四郎・南不二男編集(1973) 敬語講座『中世の敬語』③ 明治書院
- ・蜂谷清人(1977)『狂言台本の國語學的研究』笠間書院 pp.149-208
- ・小林千草(1984)「終助詞ゾの敬意表現—虎明本狂言を中心に—」『國語學』136集 pp.47-64
- ・小林賢次(1999)「大藏虎光本狂言集の本文の異同について—待遇表現に關して—」『近代語研究第10集』武藏野書院 pp.1-20
- ・小林賢次(2000)『中世語彙語法の研究』勉誠出版
- ・辻村敏樹・春日和男・櫻井光昭・小松壽雄・宮地裕(1983) 講座國語史『敬語史』大修館書店
- ・辻村敏樹(1992)『敬語論語』明治書院 pp.9-178
- ・小山弘志・田口和夫・橋本朝生(1987)「狂言の形成と展開」岩波講座『能・狂言V』岩波書店 pp.113-149
- ・福澤幸吉(1963)『室町時代言語の研究』風間書房 pp.109-140
- ・荻野綱男(1989)「聞き手に關する敬語行動の理論」『國語學』158集 pp.27-35
- ・蜂谷清人(1998)『狂言の國語史的研究』明治書院
- ・中村幸廣・大久保一男・碁石雅利(2002)『古典敬語詳説』右文書院 pp.262-357



要 旨

大藏流虎明本「狂言」における「お～あ(や)る」の用法について考察した結果、尊敬の意味とともに丁寧表現としての用法が認められる。

一、話し手より動作主のほうが上位者である場合は、話題の人物が上位者である場合と聞き手が上位者である場合とがある。動作主のほうが上位者である「お～あ(や)る」は、主に話題の人物に對して敬意を現わすのに用いられ、聞き手に對して敬意を現わす用法は前者に比べてあまり多く用いられていない。話題の人物に對する敬意は「語り」における敬意は語形も変化せず、待遇価値も固定化して最高の敬意を現している。これに對して「一般會話文」における敬意は相對的に高くないし、その敬意も話題の人物に對する話し手の心理的变化や場面的状況の変化を窺える場面に多く用いられている。

二、話し手と動作主が同等である場合は、初対面や家族の間、身分の同等の關係で用いられている。これは相手に對する敬意を表しているが、それとともに丁寧表現の用法も含まれている。それは相手に對しての配慮が含まれているからである。

三、話し手より動作主のほうが下位者である場合、一般的には平常語が用いられるが、「お～あ(や)る」が

用いられる場合がある。これは聞き手に對しての敬意というよりは話し手自身の品位維持と聞き手である動作主に距離感を与える効果としての丁寧表現の用法が認められる。また、これには話し手の心理的变化を表わすもので、観客に對しての配慮の気持ちや、劇の進行における場面の轉換、劇の反轉、などの働きも認められる。

キーワード：お～あ(や)る・話者・動作主・敬意・尊敬・丁寧表現

투 고 : 2004. 5. 31
1차 심사: 2004. 6. 12
2차 심사: 2004. 7. 3

住 所 : (158-828) 서울 양천구 신월1동 134-17 태영아파트 101동 1007호
電 話 : 02-2692-5123
E-mail : hanjapan@hanmail.net

K C I